

프롤로그

걷다가 생각에 잠길 때 세상은 사라지고 몸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걷다가 가끔 생각이 멈출 때 세상은 사라지고 몸은 사물과 동화되며 사건을 매개한다. 걷기의 궤적은 사건과 마주치는 몸짓으로 세계의 원풍경을 소환하는 영사기다. 몸(활동의 가능태)은 선사시대부터 만 년 전까지 짓(탐사 행위로서 나아감 자체)으로서 생존했으며 지금도 습관에 내재되어 있다. 다만, 쓸모가 덜해졌을 뿐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사건은 걷기의 궤적에 이접하여 접촉하면서 긴 굴곡을 잉태하는데 이는 전개체적 실재(realite preindiduelle)¹이자, 주름진 선분 사이에서 진동하는 발화다.

걷기의 고고학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생존 기제로써 직립보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장시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척추를 수직으로 곧게 펴고 골반은 걷기에 효율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느리지만 두 다리로 머나먼 길을 걸을 수 있게 독려했다. 또한, 두 눈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먼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자유로워진 두 손은 걷기와 함께 강력한 생존 도구로 작용하며 추운 곳이건, 더운 곳이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기에 걷기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거의 모든 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정착지는 걷기의 흔적으로 얽히며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점차 많은 사람이 오가며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인간 삶의 패턴(인간의 존재 양상으로써 일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돌아올 수 있는 삶은 유의미한 사건을 생산하는 경로(hodology)²로써 걷기에 적당한 리듬으로, 예민한 온도계처럼 일상을 탐색하는 파수꾼으로 기능했다.

지금의 걷기는 사물과 관계 맺는 즉자적 방식(고유한 현상에 대한 긍정)에서 문명이란 집 속의 존재자로서 전치 효과(displacement effect)로 작동하는 타자적 방식(객관적 인식을 통한 지향)을 획득했다. 이로써 걷는 자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생각하는 인간)에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문화를 유희하는 인간)로 탈주하여 몸과 사물의 관계를 새로운 탐구영역으로 상징하는 지위를 매개했다.

도시 걷기의 해석

조정자는 자연적 지문(地紋) 위에 욕망을 투사하여 현대를 추동했다. 구불구불한 몸(개천, 둔치, 산등성이와 같은 자연적인 상태)은 반듯한 그리드로 대체되었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 증가하면서 걷기의 패턴은 불규칙한 리듬으로 축소되었다. 도시 걷기의 가치는 일상을 영위하는 선택적으로 절하되며 걷기의 아우라는 익명 속으로 사라짐과 함께 기능으로 대체되었다.

도시 공간은 일반적으로 가로(street)로 구성되며 높은 지가(land value)로 인해 건물 간 1m 내외 간격으로 조성된다. 미시적 걷기 단위는 1km의 규모(초근접 생활권)로 일상이 산란(散亂)하는 연결망이다. 동네를 걸을 때 집, 분위기, 공기, 냄새, 대화 등 일상의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물 환경과 걷는 신체가 조응 (correspondence)하면서 일상(체화된 장소)의 아우라가 현성(Wesen)³하게 된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묘사하는 그 시대와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는 익명의 도시 군중이자 상호 적대적인 경쟁자로서 이방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걷기의 풍경은 우연성의 결여, 타자화, 고독한 발화의 코드로 이접되면서, 환경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은 불필요해졌고, 개인의 공간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절대적 보루(bastion)로서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ity)으로 발화되었다. 공간의 사이는 사건의 단서마저 병원균으로 오인하여 제거되게 하는 무균실(non-place)로 변질되었다. 일상의 길에서 자동차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걷기는 점과 점 사이를 오가는 긴장된 선으로서 작용한 지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신경증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걷기의 감각은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 주변의 사물 환경은 이제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내부로 엄폐하는 위장술을 펼친다.

너무도 선명한 경계는 서로의 외부를 이름 없는 타자의 공간(공공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제 도시의 최소 공간 단위를 각자의 신체로 상징하고, 걷기를 통해 경계 공간과 의미 체계를 탈주하여 유동하는 공간(몸)의 세계로 접속한다.

걷기, 선, 이야기

몸은 인지적 감각을 환경에 투사하는 걷기 방식을 통한 유동하는 나침반으로서, 시공간을 동시 확장하며 삶의 궤적을 생산하는 노마드적 존재다. 유목민에게 공간이란 지평선으로 추락하는 태양의 궤적에 몸을 일치시키고, 걷기의 리듬을 조율하여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반 건축적 지대다. 또한, 걷기는 세계를 가로지르며 도상의 풍경에 대한 감각(도시의 무의식)을 읽어내는 도구로서 도시는 더는 기호의 이미지가 아닌 상황적 인식공간으로 전환되며 이름 지워지지 않은 것(Existenz)과 만날 채비를 해야 한다. 이제 걷기는 도시 공간 시스템에 의한 수동환경(matrix)의 계락을 깨달아야 할 때다.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더 안락하게’와 같은 표어는 인간을 사이보그로 선포하며 영혼 없는 몸으로 우리의 감응 체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서울디자인 수도의 표어 중 ‘삶이 예술이 되는 도시’라는 표제는 아주 훌륭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다.

설치물은 장소와 의미 결합하여 예술적 상징물로 기능하지만 ‘지금-여기’⁴의 걷는 몸과 유리(isolation)되어 상징적 신체와 소통하는 ‘관조의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를 규명할 수 없다. 사물의 본질은 가까운 것들끼리 모종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모든 표상적 가치관을 배제한 지금 이 순간 드러나 있는 풍경과 관계 맺은 몸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공간이 발화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은 수행적 공간 의식을 되찾기 위한 무대로서 무의식 속에 깊게 잠겨버린 이야기의 단서를 되찾아야 한다. 그 단서들로 기존의 체계에 변형을 가하여 생성적 의미를 추출하고 일시적이건 반영구적이건 긴 선분과 리듬 사이에 균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불특정한 우연성이 개입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연은 이야기가 샘솟는 주름과 같다. 유동적 리듬은 반듯한 상태에 충격을 가하여 주름을 만들고 만곡한 장소에 흔적을 쌓아 이야기를 생산한다. 이런 상이한 흔적은 이종적(heterological) 발화점으로 작용한다.

걷기의 레토릭

길은 반듯하거나 구불구불한 고유 경로로 드러나는데, 이는 걷기의 흔적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중첩되는 것이다. 길은 기분이 좋아 펄쩍펄쩍 뛰어가기도, 낙담하여 느린 걸음으로도, 친구와 장난치며 이리저리 활보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몸의 대화가 교차하는 공론장이 된다. 말하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글은 생각하는 존재로부터 고안된 정교한 기획이자 체계로서 작동하지만 말하기는 글쓰기의 사이를 우회 또는 전복하며 이종적 주름을 생성하는 기습적 발언대다. 걷기와 말하기는 중첩된 차이를 횡단하며 실존의 구름을 선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고유한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하는 양가적 코드로서, 걷기가 발화적

1 전개체적 실재(realite preindiduelle): 개체 이전의 잠재적인 상태를 이르는 의미로써 순수한 사건들이 확률적으로 잠재되어있는 준 안정적 평형상태이며, 자기동일적이지 않다. 형상 이전 생기의 과정 자체를 존재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개체적 실재의 발현은 개체 간 우연적인 생성과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2 호몰로지 공간(hodological space): 수학적인 위상공간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공간 개념으로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심리적 상황에서 걷고 있는 인간의 경로는 미리 결정될 수 없으며, 길과 익숙해지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체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체험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유동적 공간이기도 하다.

3 현성(Wesen): 존재는 항상 눈앞에 존속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의 시간적-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상태의 관계 속에서 출현하는 경험적 사태라고 할 수 있다.

4 지금-여기(顯現): 시간성을 초월한 일체의 드러남으로써 현상 너머의 근본적인 자기축발적 사태라 할 수 있다.

형식과 합생(concrescence: 더불어 발전하여 하나의 존재 개념으로 공-진화)이 메타 의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로써 걷기는 현재 상황을 부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행 풍경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바깥, 걷기 풍경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의 국토 전체는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다. 건설 붐 시절의 건축물 수명은 이제 다했다. 지금은 바야흐로 재건축의 시대다. 현재 방배동의 여러 주거지역은 재건축 중이며 두 구역은 철거 완료된 상태다. 넓은 지면이 시야를 넓히며 드넓은 하늘을 열었다. 몇 주가 지나자 물웅덩이도 생기고, 잡초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넓게 비워진 공간은 경계 부근의 삶과 부딪히며 진액을 내뿜고 있는 듯하다. 공간은 대지로서 주변 환경과 어색하게 마주하지만, 곧 높다란 가림벽이 설치되며 선명한 경계가 등장했다. 한동안 지도에서도 사라졌다. 이식수술 전, 도려낸 환부처럼 진공 공간은 바깥의 삶을 빠르게 잠식했다. 생활공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건축 현상은 일상이 소거된 마취된 공간으로 일상의 걷기는 전면 무효가 되고 경계 바깥의 이질적 풍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걷기를 통해 바깥 풍경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밀한 진동에 귀 기울인다.

점령 후, 일 년간의 방치

피시스(physis: 자연적 사물 환경으로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우선하는 존재를 지시한다)는 일 년을 주기로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오랜 세월을 영속하였다. 한편, 노모스(nomos: 인위의 사물 환경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지시한다)는 외계의 지략으로 인해 피시스에 착상하게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두 세계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침잠했다. 이상 반응이 없었기에 피시스는 그들을 허용하며, 고요하게 위요(圍繞)했다. 그런데, 일 년 전쯤



[그림 1] 걷기 풍경, 2021, © 정형원



[그림 2] 점령 후 일 년 간의 방치, 2021, © 정형원

잠에서 깨어난 노모스의 알 수 없는 조각들은 거대한 음모를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피시스를 전복하기 위한 염탐을 하고 있었으며, 단번에 전복 가능한 전략을 공모했다. 기능을 알 수 없는 조각들은 일순간 수목과 땅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변태하여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거리의 네 개 블록 중 가장 높은 곳이 제거당했다. 피시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 세대 점령 도시의 수명이 남았지만, 욕망의 건축은 힘을 규합하여 거대한 컨트롤타워를 건설하기로 했고 곧이어 점령 도시(철거된 전용주거지역)를 숙청했다. 빈 곳의 성벽은 압도적인 높이의 음모 공간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회유자(heterotopia: 다양성이 혼재된 지대)는 양쪽 상황을 관망하지만 그들의 심경은 걷는 존재의 움직임에 따라 성벽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다. 곧 대규모 회의가 있을 거라고 했다.

가로수와 가림벽

피시스의 병사는 벽에 닿을 듯, 한 치의 양보를 모르는 기세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병사는 무표정한 가림벽의 계략에 자신의 의중을 읽히고 만다. 가림벽은 병사의 적의를 벽면으로 흡수하여 후면에 설치된 의미 변환기로 전송한다. 가림벽에 비친 나무의 표정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슴의 눈망을 같다.

빈 집터

얼마 전, 이 지역에는 양 진영의 파상적 게릴라 전투가 있었고 노모스가 승리했다. 격전의 흔적이 무수하게 남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아늑한 장면이 떠오른다. 아니, 이미 아늑하다. 일상이 멈춘 공간은 다시 무질서로 채워지기 마련이며 새들은 주인 없는 의자에 앉을 권리를 행사한다.



[그림 3] 조용한 대치, 2021, © 정형원



[그림 4] 빈 집의 감정, 2021, © 정형원



[그림 5] 유기 사물, 2021, © 정형원



[그림 6] 도망자, 2021, © 정형원



[그림 7] 사건의 지평, 2021, © 정형원



[그림 8] 중첩된 표정, 2021, © 정형원

유기 사물

점령 도시의 사물은 피시스에 대한 위협용으로 전시되고 있다. 행복한 삶의 시작과 함께한 이들은 서로의 용도에 따라 가능했지만, 지금은 혼합된 배치로 방치된 신세대. 그들의 바람은 무성 공간에서 다시 피시스로 귀향하는 것이다.

도망자

일상의 도망자를 포획하여 가둔 지 몇 달이 지났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고사시킬 계획이었으나 전략을 변경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본보기로서 최소한의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주기로 했다.

사건의 지평

그 누구도 삶이 삭제된 공간을 볼 수 없다. 그들이 쌓아 올린 굴절된 공간이 시뮬라크르(simulacre) 세계로 반사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작은 균열로 하여금 통제된 세계가 잠시 열렸다. 틈으로 보기에 험한 무성 공간이 있을 뿐이다. 거대하고 촘촘한 개념의 성체가 투명하게 빛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가? 과거는 경계에서 잠시 머물다 맞은편 세계에 권리를 이양해야 할 것이다.

복제된 과거는 시간과 혼합되어 용도 변경될 것이라곤 걸 노모스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시각을 교란하는 술책이다.

중첩된 표정

바깥 세계의 표정은 무심히 가림벽에 드러났다. 아무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채 먹먹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고 있다. 어두운 공간의 외곽선은 은밀한 것을 발설하지 않으려 내부의 삶을 삼켜 버리고 진동하는 듯 궤적을 따라 느리게 걷고 있다. 돌의

어색한 대면은 누가 복제된 것인지 묻고 있지만 상호-반사되어 물음의 주체마저 잊어버린 듯하다.

탈주병

빈틈없는 가림벽 사이로 탈출을 감행하는 피시스의 포로를 발견했다. 노모스는 탈주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에게 비상식적인 것(실재)은 제거해야 할 불문율이다. 결국, 가림벽은 포로의 탈출을 막지 못했다. 노모스 대 피시스의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했다. 노모스는 바닥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전 강제 계약으로 허울만 남은 상태다.

바리케이드

탈주 사건은 노모스 지휘부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피시스의 포로들을 처형하고 바리케이드로 활용했다. 노모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바닥 세계와 밀회를 통한 공모를 감행한 것이다. 시신 더미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지면서 시큼한 악취를 풍기고 있지만, 시신의 틈에서 피시스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도대체 이 현상은 누구의 모사인가?

감시

노모스의 오류는 완벽을 지향하지만, 근본이 불안정한 존재다. 불안전성은 의심을 소환하며 지휘부의 눈을 가림벽 정면에 배치했다. 피시스의 음모를 지켜보고자 했지만 그들의 의도를 감지할 수 없다. 의심은 밤이 되자, 어둠 자체를 감시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짐작하기로 했다.



[그림 9] 탈주병, 2021, © 정형원



[그림 10] 바리케이드, 2021, © 정형원



[그림 11] 감시의 눈, 2021, © 정형원



회유

노모스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가림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가림벽은 히스테릭한 상태로서 아무런 반격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피시스의 생명은 가림벽을 사이에 두고 무심히 노모스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중, 피시스의 존재(새)는 하늘에 작은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다가 가림벽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한동안 일광욕을 즐기던 존재 중 하나가 슬그머니 어둠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모스의 지휘부에서는 어둠 속 존재가 전향할 것으로 짐작하고 포섭할 준비를 서둘렀고,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재빨리 납치하기로 모의했다. 사실, 어둠 속으로 옮겨간 존재는 뜨거운 햇살을 잠시 피하던 중이었다. 향후, 피시스의 지력이랄 것 없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존재인지 모르는 노모스의 신경과민적인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다.

경비병

가림벽을 지키는 경비병은 접근하는 사물에 대한 단속을 행사하는 임무 수행 중이다. 연약한 신체에 수많은 모멸을 당했지만, 자신은 경비병으로서 변함없는 신념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무규칙적인 배치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 즉시 직위 해제(소각)될 운명이다. 그의 상관이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지휘부의 눈은 배치 자체로 위력을 행사한다. 높은 곳에서 유유히 모든 사건을 조망하고 있으나 그 역시 노모스의 간택이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이 유효한, 일시적 사물일 뿐이다.

엄습

바닥 세계는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 표류하는 선으로 존재하지만, 미시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세계는 화해를 중재하는 중립지대다. 상호 의사를 타진하는



[그림 12] 갈등하는 존재, 2021, © 정형원



[그림 13] 경비병, 2021, © 정형원

[그림 14] 엄습, 2021, © 정형원



양자 간 회담이 있었지만, 노모스의 지휘부는 바닥 세계의 가장 은밀한 지점에서 긴급 신호를 내비쳤다. 중립을 관장하는 바닥 세계는 그들에 비해 왜소한 영역 속에 있지만, 중립을 선포한 후부터 힘의 우위에 서서 유동적 제스처를 뽐내고 있다. 이 얼마나 잔망한 표정인가! 피시스의 존재는 신호의 영역으로 모여들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감상 중이다.

포획

어젯밤 노모스에게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파괴된 점령 도시의 잔해들이 연합하여 노모스를 반격한 것이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본래 이들의 고향은 노모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국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 잔해는 결국 포박된 채로 바깥 공간에 전시되었다. 노모스가 최상위에서 군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념은 실존의 어느 지점에서 탈주를 감행했다. 자신의 텃줄을 끊어내며 신체의 감각 속에 세계를 이식했기 때문 아닐까?

처형식

바깥 공간의 존재들은 포박된 잔해를 응시하고 있었다. 포박된 잔해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처형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포박된 잔해는 피시스를 감시하는 하위 병사로 용도 변경될 것이다. 이들은 무기의 세월 동안 단 하나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체념한 지금, 피시스의 중심으로부터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진다.

척후

바닥 세계로부터 다급한 전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시스의 진동을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여겼던 탐침병(신호를 잡아내는 자)은 모든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른다. 노모스의 감각 시스템으로는 진동의



[그림 15] 포획, 2021, © 정형원

[그림 16] 처형식, 2021, © 정형원



[그림 17] 척후, 2021, © 정형원



[그림 18] 탈은폐, 2021, © 정형원

의미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모종의 계기로 피시스의 시간이 일시적으로 증폭된 것이다. 피시스의 시간은 노모스의 시간과 다르게 느리다. 느림을 인식할 수 없기에 영원성이란 개념을 부여했다. 암벽 틈에서 뿌리내리는 나무의 강도, 조수 간만의 압력, 경쟁자로부터 망을 보는 새의 눈빛, 시냇물의 덤덤한 흐름은 노모스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몸짓에 과잉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피시스의 모든 존재는 전-개체로서 연약한 가능태의 모어-들이다. 자아의 얼굴을 가진 노모스의 존재는 자신의 각막에 이식된 이타성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물고기가 자신이 물에 사는 줄 모르듯, 노모스의 시민 역시 자신이 개념 속에 사는 줄 모르는 것이다. 이상 현상은 찰나에 사라졌지만, 한동안 지연될 뿐 노모스는 아마도 방주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드러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모스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감시했지만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 잠정 판단을 내렸다. 자신을 위협하기엔 미약해 보였다. 태양이 기울고 달이 차오르며 가림벽에서 모든 존재의 회담이 시작되었다. 점령 도시로부터 버림받은 사물, 블록을 뚫어내고 올라온 넝쿨과 초와들, 중간지대의 전봇대, 온 감각이 총혈된 가림벽까지 달은 옅은 미소로 모두가 모여 있음을 바라보며 흡족해했다. 이들은 달빛의 주선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가을 청명한 하늘을 산책하는 구름의 운율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상을 이해하는 순간 다른 이유가 개입하며 실존은 보류(époché)된다. 이제 노모스의 도그마(dogma, 노모스를 위한 절대적 불문율)는 사물 환경 간 사건에서 드러난 톨레랑스(tolerance, 상호 관용으로 혼용)를 받아들여야 한다.

에필로그

이 글에서 나는 몸의 감각이 사물과 관계 맺는 지점들을 통해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탐색했다. 이 글은 엄밀히 말하면 미학적 수준의 글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탐색을 이름 짓기 한 이유는 이 글이 우리가 목격하는 공간을 현상으로 묘사하기를 거부하고, 사물의 존재로부터 공간의 실존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마주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기 원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이 분리되기 시작한 이래 사물은 지시적 대상으로서 체계화되며 우리는 사물화된 일상을 영속하고 있다. 사물의 무한복제 생산체계는 인간이 더는 실존에 대한 의문 자체를 떠올릴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미 일상 공간이 비장소화로 점철된 지 오래전 일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늘어만 가는 도로, 내 손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않는 모바일, 반듯하게 조밀해지는 공공디자인 등(열거할 현상이 많지만) 인간과 사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지는 소멸하고 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유연성은 제거되어야 할 항목이 되었고, 누군가의 호감 어린 행위도 검열 항목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인 걷기를 고작 여가로 치부할 것인가? 바다가 정말 바다인 것처럼, 각자의 몸으로 접속하여 드러난 사물들은 나의 확장된 신체이자 세계로서 유일한 것이다.

미시 세계가 불확정적이라 합의한 것(우주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최소단위로서 사물의 실체를 규정하려 했지만, 정확한 관측이 어렵고 어찌면, 사물은 진동하는 자체로 생기하는 것일 수 있다)처럼 걷기는 지금-여기에서 이름 없이 현성한다. 🍷

참고문헌

- 장세룡, (2007),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수영, (2017), 『시뮬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 다비드 르 브르통, (2002), 『걷기 예찬』, 김화영, 현대문학
- 리베카 솔닛, (2017), 『걷기의 인문학』, 김정아, 반비
- 마르틴 하이데거, (2008), 『강연과 논문』, 이기상 외, 이학사
- 프레데리크 그로, (2104),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이재형, 책세상
- Francesco Careri, (2017), *Walkscapes*, Ames: Culicidae Architectural Press
- 안미현, (2018),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트 발처의 제유적 글쓰기」, 『독일언어문학』, 제82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 이희상, (2013), 「도시 속 걷기와 도시 공간의 박물관화: 수행적 공간으로서 대구 근대골목투어」, 『대한지리학회지』, 48권 5호, 대한지리학회
- 백영주, (2017),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미셀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6권, 인문콘텐츠학회
- 김연숙, (2004), 「보행의 시학: 몸의 발화에 귀기울이다」,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 이상우, (2018), 「걷기, 가장 인간적인 움직임」, 《월간교통》, 6월호, 한국교통연구원